추석 선물세트 '가성비' 높은 중저가 인기

이마트, 5만원대 과일세트 매출 2배 가까이 증가

홈플러스, 배 물량 늘려 가격 인하 매출 2.4배 ↑

신선식품 물가 상승으로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이 높아지면서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업계에서도 가성비 추석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끌고 있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3일까지 37일간 추석선물세트 예약판매 실적을 분석한 결과, 매출이 가장 많이 상승한 품목은 배로 약 2.4배(143.4%) 높아졌다.

이런 실적은 상대적으로 고가였던 한우(32.6%), 주류(20%)는 물론 전체 평균(16.1%)을 한참 웃돈 결과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작황이 좋았던 데다 사전 계약을 통해 물량을 대거 확보하면서 가격을 5% 가량 낮췄던 것이 주효했다"고 내다봤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추석 3주 전인 지난달 30~31일 이틀간 서울 시내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88개 제수용품 물가를 조사한 결과, 과일류(사과, 배, 상주산 곶감) 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22.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는 27.3%였다.

같은 조사에서 올해 추석 제수용품 구입 비용은 4인 가구 기준 평균 30만369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상승한 수준이다.

이마트에선 지난달 5~26일 22일간 추석 사전예약 매출을 분석한 결과, 과일 세트에선 전년 대비 5만원 미만 가성비 선물 매출이 2배 가까이(94.3%) 늘었다.

이마트는 3만원대 '리미티드 딜' 선물세트를 준비해 높아진 물가 속 합리적 상품을 찾는 소비자 수요를 겨냥했다.

사과, 배, 샤인머스캣, 곶감 등 선물세트를 시세 대비 30% 저렴한 가격에 선보였다.

계열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SSG닷컴에선 지난달 5~26일 추석 선물세트 사전 예약에서 10만원 미만 상품 매출이 전년 대비 34% 상승했다. 5만원 미만 사과·배 단품, 황태포 등 건어물 상품이 한 예다.

업계에 따르면 5만원대에서 가격을 형성하는 '가성비' 추석 선물세트는 매년 대형마트 주력 상품군으로 꼽힌다.

특히 개인 소비자보다 거래처 선물용으로 단체 구매에 나서는 기업이 '큰 손'으로 꼽힌다.

하지만 최근 차례상, 밥상 물가가 상승하면서 가성비 선물을 찾는 고객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통업체들도 실제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 기간엔 가성비 세트를 늘리며 수요 잡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마트는 9월6일까지 주요 신선식품 선물세트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한다.

이마트 관계자는 "연초부터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장기 플랜을 수립하고 선물세트 가격 안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자료에서 지난달 27일 기준 1kg당 도매가 2만1,431원으로 전년 대비 10% 가량 상승한 한우는 물량을 비축하고 유통 단계를 축소해 최저 7만원 초반대에 살 수 있는 선물세트를 마련했다.

전남 나주산 배 선물세트 기획 물량을 지난해 4배 규모인 4만 세트로 늘리고, 사과는 전북 장수산 원물 매입량을 2배 늘린 200t으로 편성해 혼합세트 가격을 7.5% 낮췄다.

홈플러스도 오는 9~22일 진행하는 추석 선물세트 본판매에서 3만원대 이하 선물세트 비중을 65%로 편성했다.

동일 상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N+1' 행사도 마련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비대면 추석으로 고가 선물세트를 찾는 트렌드가 대세라고 하지만 가성비 상품은 대형마트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바이어들이 추가 산지 확보 등을 통해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세관, 명절연휴 특별통관 지원

광주본부세관은 7일 추석 연휴기간 지역 수출입 기업의 수출입통관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등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특별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세관은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과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공휴일이나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또 수출화물 선적의무기간(1개월)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연휴기간 선적기간 연장 신청을 처리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세관은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17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8시까지로 연장하고 서류심사 이전 환급금을 먼저 지급한 뒤 추석명절 이후에 관련 서류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지역의 중소 수출업체를 지원하고 추석명절에도 수출입 통관물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전남TP, IR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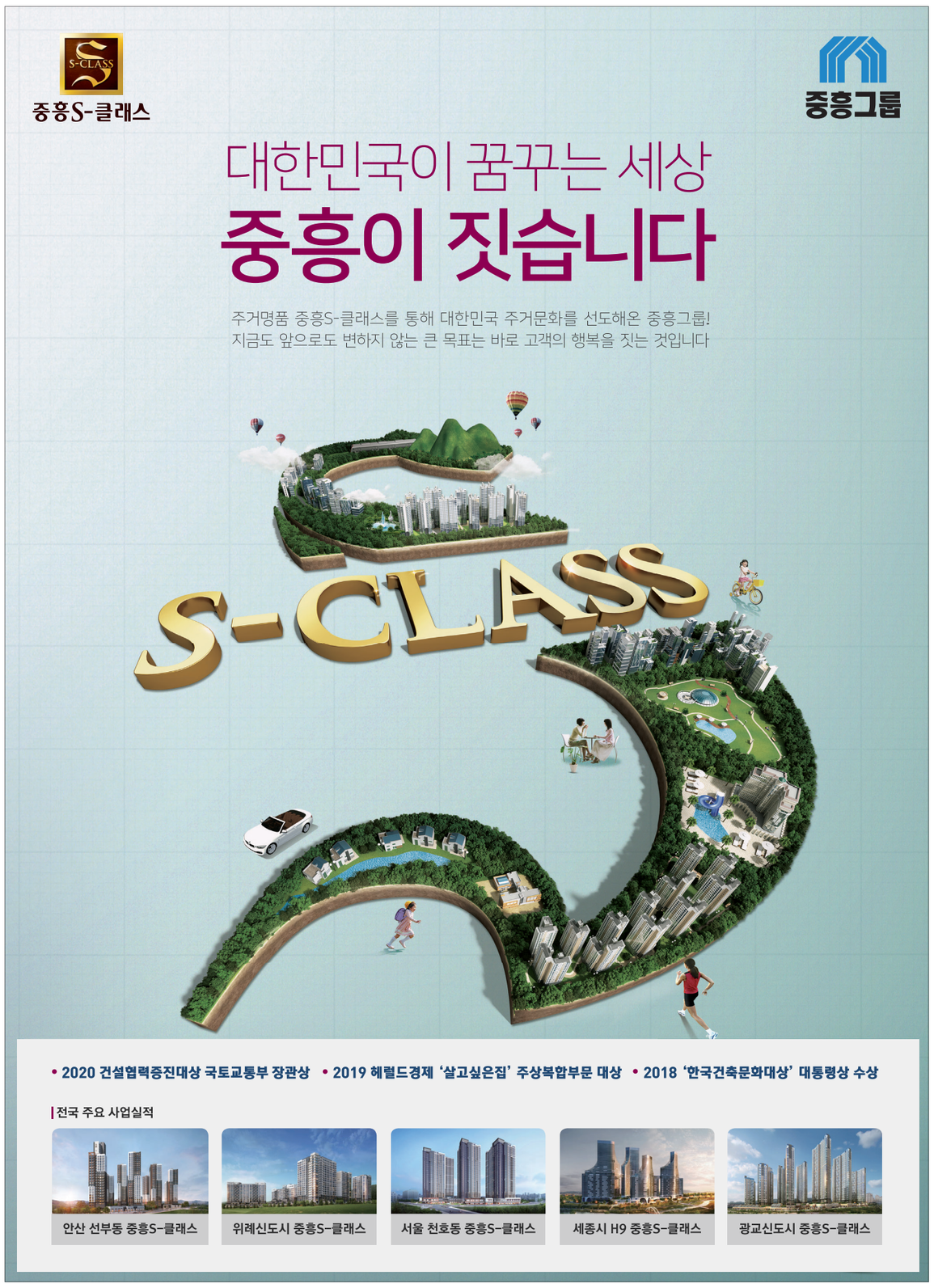
(재)전남테크노파크(원장 유동국)는 전남 도내 우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장과 스케일업(scale-up)을 위한 맞춤형 투자유치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를 위해 '전남 중소기업 기술혁신성장을 위한 VC 연계 IR 컨설팅 참여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 지원은 VC(벤처캐피탈) 연계를 통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우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유치 역량강화와 기업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가 1대 1 매칭을 통한 컨설팅 지원, 투자로드맵 수립 및 IR 보고서 작성지원, 투자유치 설명회 참가지원, 예비 투자심사보고서 작성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공고문 확인 및 온라인 접수는 전남테크노파크 기업혁신성장플랫폼(data.jntp.or.kr)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은행은 최근 본점에서 송종욱 은행장과 김양균 (재)광주은행장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광주은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성적우수 104명에 장학금

총 1억3천만원…"지역 이끌 인재로 성장했으면"

광주은행은 7일 지역인재 104명에게 장학금 1억3,000만원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광주은행은 지난 6일 본점에서 송종욱 은행장과 김양균 (재)광주은행장학회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광주은행장학회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광주은행장학회는 광주·전남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장학생 104명을 선발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학교별, 학년별 대표 장학생만 참석했다.

광주은행은 지난 1981년 광주은행장학회를 설립한 이후 40년 동안 4,000여명의 장학생들에게 총 35억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학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매진하는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나갈 핵심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이익 이상의 가치 추구'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당기순이익 10% 이상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재)광주은행장학회를 통한 장학금 전달 외에도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현재 63호점)'과 '희망이 꽃피는 꿈나무(현재 6호)'를 지속적으로 선정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있다.

또한 전체 채용인원의 80% 이상을 광주·전남 지역 출신으로 할당 선발하고, 대학생 홍보대사를 선발해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인재 채용에도 앞장서며 지역 청년들을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미애 기자

"감사 마음 지역 농축산물로 전하세요"

전남농협, 추석 농축산물 선물코너 인기

농협전남지역본부는 추석을 맞아 농협 광주유통센터, 목포유통센터를 비롯한 관내 지역농축협 하나로마트 374개소에 지역 농축산물 선물코너를 운영해 전국의 소비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특히 농협하나로유통이 운영하는 유통센터(광주, 목포, 남악)는 오는 20일까지 선물세트 구매 때 신용카드 할인 최대 39%, 농산물상품권 최대 100만원 증정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한편,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각 지자체가 벌써부터 코로나 확산 방지차원의 고향방문 자제 캠페인을 펼치고 있어 언택트 방식으로도 농축산물 판매에 나섰다.

전남농협 자체적으로 과일류(사과, 배, 멜론, 샤인머스캣), 햅쌀, 축산물(한우, 한돈, 육포), 김치세트, 버섯류, 전복 등 30종을 할인가격으로 준비해 전국의 농협 계통사무소 임직원으로부터 주문을 받고 있다.

박서홍 농협전남지역본부장은 "스마트폰 앱인 '농협몰'과 '하나로마트앱'을 통해서도 우수한 품질의 우리지역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며 "실속 있는 선물로 전남농협 농축산물을 애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우성진 기자

선물꾸러미·제수용품 원산지표시 일제 단속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꾸러미,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오는 20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는 20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전통식품,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대추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은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 수입상황과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해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 단속 전담반을 활용해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미애 기자